

# 주일 가정기도예식

(2020.12.27.)

성탄주일



대한성공회

인천나눔교회

시작성가

성탄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147



1 그 맑 고 환 한 밤 중 에 천 사 들 내 려 와  
 2 천 사 들 날 개 피 고 서 이 땅 에 내 려 와  
 3 이 괴 림 많 은 세 상 에 짐 지 고 가 는 자 에  
 4 천 지 자 예 언 이 루 어 배 들 레 햄 성 중 에



그 손 에 비 파 들 고 서 다 찬 송 하 기 를  
 그 때 에 부 른 노 래 를 또 다 시 부 르 니  
 그 힘 한 준 령 념 으 며 온 몸 이 곤 하 나  
 주 에 수 탄 생 하 시 니 온 세 상 구 주 라



평 화 의 왕 이 오 시 니 다 평 안 하 여 라  
 이 슬 픔 많 은 세 상 에 큰 위 로 념 치 고  
 죄 많 은 세 상 동 안 세 소 망 가 치 고  
 저 천 사 기 썩 노 래 를 또 다 시 부 르 니



그 소 란 하 기 던 세 상 이 다 고 요 하 도 다  
 온 세 상 기 때 세 상 놀 며 다 다 찬 송 하 도 다  
 저 천 사 기 썩 때 세 상 놀 며 다 다 찬 으 며 쉬 어 라  
 온 세 상 사 기 썩 때 세 상 놀 며 다 다 찬 으 며 쉬 어 라

인도자, ● 다같이

1. 시작기도

-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와 함께 하소서.

○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성자께서는 참 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 2. 오늘의 시편

※ 시편 148편

○ 알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 **그의 천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그의 군대를 모두 찬양하여라.**

○ 해와 달아 찬양하고

반짝이는 별들아, 모두 찬양하여라.

● **하늘 위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찬양하여라.**

○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큰 물고기도 깊은 바다도,

● **번개와 우박, 눈과 안개도,**

**당신 말씀대로 몰아치는 된바람도,**

○ 이 산 저산 모든 언덕도,

과일나무와 모든 송백도,

● **들짐승들과 가축들도**

**기는 짐승과 나는 새들도,**

○ 세상 임금들과 모든 추장들도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 **총각 처녀 할 것 없이**

**늙은이 어린이 모두 함께**

○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분 홀로 한없이 높으시고 땅 하늘 위에 그 위엄 떨치신다.

● **당신 백성의 영광을 드높여 주셔서,**

**당신을 가까이 모신 이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 알렐루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3. 성서독서

#### 1독서

○ 1독서는 이사야서 61, 62장의 말씀입니다.

10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뚫는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겹옷을 돌려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패물을 달아주셨다. 11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흐르게 하신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 오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2 마침내 못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3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이사 61:10-62:3)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2독서

○ 2독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의 말씀입니다.

4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5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6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복음

- 주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과 함께 하소서.**
-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2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3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24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26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27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28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9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30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31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32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33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34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35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36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

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같이 살다가 37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38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 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39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루가 2:22-40)

- 주님의 복음입니다.
-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 4. 설교

#### 5. 사도신경

○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 6.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대한성공회가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130주년의 역사와 함께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코로나 상황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인류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인천나눔의집과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느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 가정과 각자의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기도하거나 대표가 짧게 기도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전능하신 하느님,

●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 7. 주의 기도

-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 8. 마침 기도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 **아멘**



◆ 교회소식

1. 오늘의 예배의향

오늘은 '성탄1주일'입니다.

다시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새로운 한 해 잘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2. 송구영신예배 안내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예배도 코로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 가정기도를 드리기를 요청 드립니다. 새해 말씀 뽑기는 카톡 또는 문자로 공지 후 우편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나눔의집 소식

1. 실무자 문화활동 및 송년회

일시: 30일(수) 오후 8시 / 장소: Zoom

다음 주일	2020년 1월 3일 (성탄2주일)					
	◎ 제1독서 : 예레 31:7-14			◎ 제2독서 : 에페 1:3-14		
	◎ 복 음 : 요한 1:10-18			◎ 시편 147편		
지 난 주	출석	헌 금	일반헌금		실무자예배	
			월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합 계		

※ 인천나눔교회 봉헌계좌 : 새마을금고 9002-1827-5679-2 김돈회(인천나눔교회)

마감성가

# 335

## 하느님 약속 따라

하느님 나라



1 하느님 약속 따라 그 때에 오시어 모든 죄 없애  
 2 은혜의 이슬 내려 온 땅을 적시고 기쁨의 꽃이  
 3 세상의 높은 사람 그 앞에 엎드려 보화로 수레



시 고 사 슬 을 푸 션 다 굽 은 것 바 로 피 고 다  
 피 어 고 움 을 다 투 며 평 화 의 샘 물 흘 러 구  
 삼 아 주 님 을 모 시 네 노 래 와 간 구 로 써 씬



스려 주시 는 하 늘 의 임 금 에 수 우 리 찬 송 하 세  
 원 의 강 되 고 님 치 는 즐 거 움 이 온 세 상 가 득 해  
 없 이 아 되 니 주 께 서 세 운 나 라 그 영 광 영 원 히



축복의 사랑

새해에도  
당신의 성감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게요  
축복합니다



